

구성	주요내용
NHI News(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성공 사례, 정기적으로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공무원 이야기, 매월 2편씩 나라배움터에서 정기 연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보떡이 뭐예요?” 따뜻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한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영꾸러미 · 1:1 상담지원 등으로 따뜻한 공직 문화 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마친 민간경력자 57명, 사무관으로 첫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6기 신입관리자과정 수료식 개최, “국민에게 헌신해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과 방한 연수를 혼합한 새로운 외국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4기 말레이시아 초급관리자과정, 총 9주간 진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재원, 러 연방정부 대통령실 소속 국가경제행정개발 아카데미 (RANEP)와 가치기반 전략적 공직리더십 및 효율적 대국민소통방안 분야 공동연구 결과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공헌 위해 온라인 교육 자료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가정의 달' 맞아 부모교육 콘텐츠 특별 편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기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교육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레니얼 세대들의 새로운 출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316명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일 온라인 입교식 개최, 오는 9월 일까지 17주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생에 정책관리역량 강화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발전상 및 미래정부 역할 등 전수, 행정개혁에 기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직자, 중·고교생 온라인 진로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정책과정 교육생 청소년 간 '비대면 진로 사람책' 진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잘하는 새천년세대(밀레니얼세대) 신입사무관의 비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역량 학습교재 개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6기 7급신규자과정 교육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다양한 부처에서 활약하길 기대</li> </ul> </li> </ul>
NHI Plu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갖춰야 할 첨단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리터러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를 읽고</li> </ul>
기 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li> </ul>

## 적극행정 성공 사례, 정기적으로 듣는다

— 담당 공무원 이야기, 매월 2편씩 나라배움터에서 정기 연재 —

### < '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이야기' 주요 사례 >

◆ **근로시간 점검 절차 개선 (고용노동부 이상철 사무관)**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며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다. 사원증 출입 기록을 전자법의학(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근로시간을 점검하는 새로운 방식 도입

◆ **일본의 선전포고, 소부장으로 답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노형철 사무관, 김성건 사무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위기를 자립의 기회로, 법·제도 개선과 국내기업 지원 등 발빠른 대응으로 놀라운 성과 창출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체계 개발 (국토교통부 박원호 사무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목표로 40개 부처가 하나로 뭉쳐 한 달 만에 '지능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지원체계'를 개발

◆ **500만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피해농가 위기 극복 (농림축산식품부 홍금용 주무관, 교육부 김동로 사무관)**

코로나19 확산 속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힘을 합쳐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온라인 학습 누리집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활약상을 담은 온라인 학습자료 '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이야기)'을 매월 2편씩 정기 연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이 한 가지 주제, 몰입도 높은 구성으로 제작한 온라인 학습 자료를 정기 연재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사례 주인공들의 적극행정 추진 계기, 어려움 극복과정, 동료 공무원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 등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나눔으로써 적극행정 실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학습 후 소감을 남기면 상시학습도 인정받게 된다. 국가인재원은 3월부터 매월 연재 계획을 편성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는데 일조할 방침이다.

### 【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스토리) 연재계획(3~6월)】

일자	사례	형태 (10~20분)	수행 기관	
1	3.29.	장시간 근로는 줄이고, 임금체불 권리구제는 늘리다	강연	고용부
2		일본의 선전포고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 답하다	이야기쇼	산자부
3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체계 개발	강연	국토부
4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피해농가 위기 극복	이야기쇼	농림부, 교육부
5	4.12.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로 노인의 생명을 지키다	강연	경찰청
6	4.26.	공무원 시험 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케이(K)-시험방역	이야기쇼	인사처
7	5.10.	보건용 마스크 앱(App) 개발	강연	과기부
8	5.24.	케이(K)-방역: 전화상담 및 처방, 자가격리 지원체계	이야기쇼	복지부, 용인시
9	6. 7.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구축	강연	수원시
10	6.21.	청와대 인왕산 초소 책방으로 재탄생	이야기쇼	종로구

※ 7월 이후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연중 연재 예정

3월에는 근로시간 점검 절차를 개선한 고용부 이상철 사무관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산업부 노형철·김성건 사무관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체계 개발을 주도한 국토부 박원호 사무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함께 진행한 농식품부 홍금용 주무관과 교육부 김동로 사무관도 성공 사례 공유에 나선다.



4월부터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교육 자료가 게시될 예정이며, 모든 자료는 유튜브 채널('인사처TV', '인재키움TV')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적극행정의 선한 영향력이 공직사회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 발굴,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 "시보떡이 뭐예요?" 따뜻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한걸음

— 환영꾸러미 · 1:1 상담 지원 등으로 따뜻한 공직 문화 조성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신규·전입 공무원을 격려하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따뜻한 공직문화조성에 나선다.

국가인재원은 지난해부터 신규·전입 공무원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전입 공무원을 격려하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무용품과 환영 편지, 국가인재원 소개와 운영계획서, 간식 등을 담은 '환영꾸러미'와 업무 적응을 도울 선배 공무원의 1:1 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최근 '시보떡'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국가인재원은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규·전입 공무원이 확정되면 사전에 업무 적응을 도울 상담자(멘토)를 지정하고, 국가인재원을 소개하는 전자우편을 보낸다. 이후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국가인재원의 생활과 업무를 안내하고, 3개월간 '이음-키움 상담' 등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이음-키움 상담'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경로와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상담자를 지정하고, 공직 경험 및 요령 등을 1:1로 지원한다.

지난해 6월 임용된 전문경력관 ㄱ 씨는 "민간근무 경험만 있어 공무원으로서 새로 접하는 업무들이 낯설었는데 같은 직렬 선배 공무원과 업무뿐 아니라 역량 개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공직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 초 신규 임용된 ㄴ 사무관도 "긴장감 가득한 마음으로 출근한 첫날,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편지와 초콜릿, 안내서가 담긴 환영꾸러미를 받아 감동받았다"면서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 신규·전입 직원 적응지원 프로그램

시기	전입일 기준 D-7일	D+7일 이내	D+1~2개월	D+3개월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음-키움 상담' 프로그램 사전 안내</li> <li>※ 상담자 지정</li> <li>▶ 국가인재원 소개</li> <li>- 교육운영 계획, 홍보 동영상, 조직 안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전입직원 예비교육(OT)</li> <li>- 안내교육 및 일체감 제고</li> <li>- '따뜻한 국가인재원 만들기' 프로그램 소개</li> <li>- 상담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월간 직장교육 등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개발역량 강화 직장교육 참석</li> <li>- '이달의 아이디어' 참여 안내</li> <li>▶ '이음-키움 상담' 프로그램 지속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음-키움 상담' 프로그램 활동 종료</li> <li>- 소감 공유 등</li> </ul>

국가인재원은 또한 신규 공무원이 가진 참신한 생각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의 아이디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자우편 서비스, 교육생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속기관장 입교 축하메시지 등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 이달의 아이디어 시상식(21.3.25.)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해 공직 사회 일원으로서 한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 마친 민간경력자 57명, 사무관으로 첫걸음

—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 개최, “국민에게 헌신해야” —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이 9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4월 20일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세 확립과 정책기획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현장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 토론 등을 통해 공직 가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서로 공유했다. 부처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경험 공유와 보고서 실습 등을 여러 차례 반복 실시함으로써 현업에 투입되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수료사

이날 수료식을 마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은 21일부터 총 24개 부처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김다혜 사무관은 “의사로서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아픈 국민을 살리고 낮게 하는 보건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방부에 배치될 정은경 사무관은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을 살려 국방부 재해보상 실무 전문가가 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교육기간 동안 성찰하고 체화한 ‘공직’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일하면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온라인 수료식

이 날 현장을 찾은 교육생대표 홍아름 사무관은 “비록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없었지만 새롭고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9주 간의 다양한 교육을 함께 이수하였고 매일매일 역량을 개발하며 서로에게 더욱 끈끈한 동기애를 키울 수 있었다”며, “9주 간의 교육을 밑거름 삼아 대한민국과 공무원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대면과 방한 연수를 혼합한 새로운 외국공무원 교육 실시

— '제84기 말레이시아 초급관리자과정', 총 9주간 진행 —

- 비대면과 방한 연수를 혼합한 새로운 방식의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외국공무원과정 최초로 비대면과 방한 연수를 혼합한 '제84기 말레이시아 초급관리자 과정(9주, 20명)'을 3월 15일부터 시작했다.
  - 본 과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로 운영한 외국정부 주문형 교육과정으로, 지난해부터 국가인재원은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비대면 학습과 방한 연수의 장점을 혼합해 마련했다.
- 이 과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변화하는 시대의 공직가치 함양, 한국의 기술혁신 사례학습, 코로나19 시대에 관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등 배양을 목표로 한다.
- 비대면 교육 7주, 방한 연수 2주 과정으로 기존의 일회성 방한연수에 비해 교과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습이 되도록 편성(문제해결 학습, 온라인 강의 및 토론 등)하여 9주간 진행한다.
  - 1차 비대면 집중학습 중에는 국가발전 원동력과 시사점, 가치기반 조직문화 이해, 적극행정 사례를 통한 공직가치 함양,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사례, 코로나19 이후 미래예측 등 사례학습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호기심과 동기 부여가 되도록 설계 했다.
  - 이후 업무와 학습을 병행한 비대면 워크숍 중에는 국가인재원 교수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해결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현안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마지막으로 향후 양국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2주간의 방한 연수를 추진해 사전에 비대면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공무원과의 직접 대화, 기관방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금번 1차 실시간 온라인 집중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은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직업과 교육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 시의 적절한 변화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기술적으로 매끄럽게 잘 운영된 과정으로 매 시간 즐겁게 참여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 또한 역사가 있는 국가인재원 말레이시아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이어지는 2차 문제해결기반 워크숍에 대한 기대와 연말 추진 중인 방한연수가 꼭 성사되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국가 간 상호 이해와 교류가 한 차원 더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범적 교육 방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은 말레이시아 정부 내에서 가장 인기 높은 해외연수 과정으로, 기수별 평균 20:1의 선발 경쟁률을 보이는 등 우수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
  - 1984년 첫 회부터 지금까지 총 83회 과정을 통해 1,666명이 수료했으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동창회를 결성해 양국 간 공공분야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 과정활동 모습



입교식 및 강의 (디지털리터러시) 모습



적극행정 및 가치기반 공직 리더십 강의 모습



4차 산업혁명 포럼 (디지털경제, AI & 디지털뉴딜, HRD & R&D)



## 국가인재원, 러 연방정부 대통령실 소속 국가경제행정개발 아카데미(RANEPA)와 가치기반 전략적 공직리더십 및 효율적 대국민소통방안 분야 공동연구 결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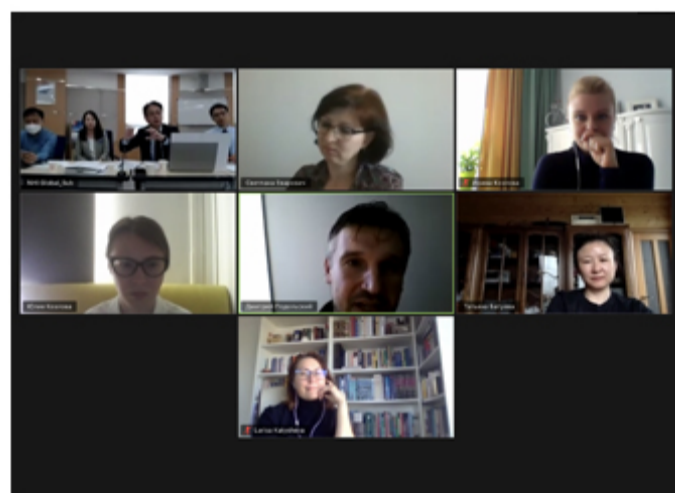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과 러시아 국가경제행정대학(이하 '라네파')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가치기반 공직리더십 및 효율적 대국민소통 등 양 기관 간 공동연구 결과'를 지난 4월 7일에 포럼 형식으로 진행하여 발표했다. 이 포럼에는 러 연방 고위공직자 및 라네파 전문가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연구는 한·러 양국 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국의 공직자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러시아 국가경제행정대학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되었다. 연구주제는 '가치기반 전략적 공직리더십'과 '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효율적 소통방안'으로 양 기관의 전문가가 수개월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협업으로 추진했다.

### 【 한-러 양국간 연구팀 개요 】

주제	국가인재원	러시아 국가경제행정원(라네파)
전략적 공직리더십	▪ 연구개발센터 조훈현 교수	▪ 행정현대화연구소 Mr. Podolski
효율적 소통방안	▪ 연구개발센터 윤우제 교수	▪ 현대소통센터장 Ms. Larisa

- '가치기반 전략적 공직리더십' 연구는 관련 교육이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 비교로 진행하였다.
  - 한·러 양국 간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교육생 만족도 등 분석한 결과 협력기반 리더십, 조직 강화, 창의성 등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향후 라네파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원에서 운영할 예정인 러시아 공무원 대상 관련 교육과정 개발·운영에도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양 기관 전문가들이 공직리더십교육의 효과성과 공직 동인 분석을 목적으로 함께 개발한 설문 키트는 한국과 외국 공무원교육의 교육학적 비교, 멀티 문화적 요소들의 공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공직리더십 분야 교육 및 제도 부서에는 활용도가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효율적 소통방안' 연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마스크 배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한 학습과 미래예측 실습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 한편, 양 기관은 지난 3월 라네파 교직원 대상 시범교육과 러 연방 고위공직자 후보자과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한 결과, 참가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 가치기반 공직리더십분야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매우 유용하고 경험치 높은 강의였으며, 가치기반 동기부여는 러시아 공직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와 국민의 효율적 대국민 소통 분야의 경우 참가자들로부터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대국민 소통과 정책 수립의 중요성, 유사한 프로세스의 현업 적용도 등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후 진행된 한러 간 공동연구결과발표 포럼에서는 양 기관 간 연구에 대한 성과와 연구를 통한 교육과정개발 등 연구의 실용적 활용, 교육과정 확대, 후속 심화 연구 추진 등에 대해 논의를 함으로써, 국가인재원 주문형과정의 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인재원 박춘란 원장은 "한·러 대표 공무원의 인적자원 개발기관이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신북방정책 핵심국인 러시아와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가인재원은 러시아 연방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러 연방공무원 연수'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러시아 국가경제행정대학과의 인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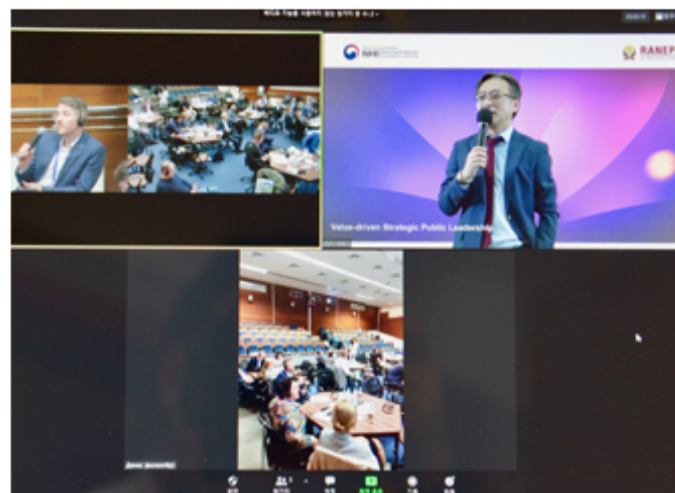
### 공동연구 활동 사진 모음



1차 화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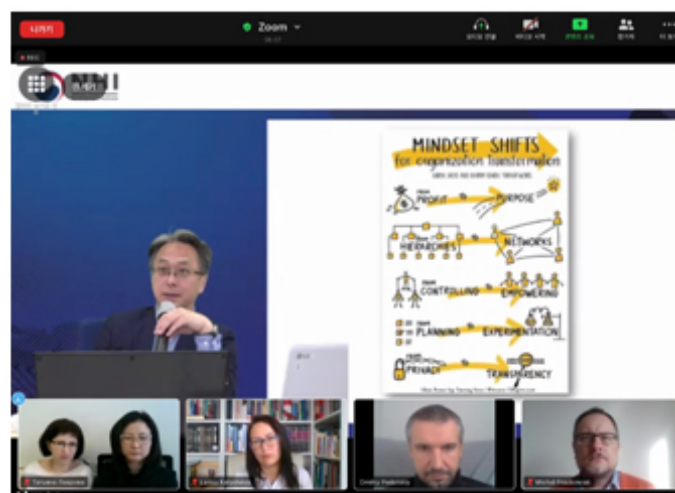
협업 모습 (s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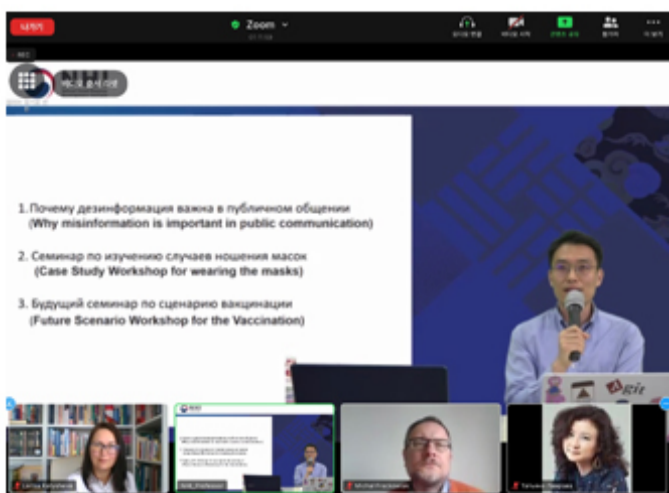
공동연구 결과 활용 온라인 강의



공동연구 결과발표 포럼



공동연구 결과발표 포럼



## 지역사회 공헌 위해 온라인 교육 자료 개방

— 5월 '가정의 달' 맞아 부모교육 콘텐츠 특별 편성 —

공무원 교육자료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한 '나라배움터 마을(빌리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온라인 학습 누리집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영상교육자료 1만3천여 편과 전자책 6천여 권을 제공하는 '2021 나라배움터 마을(빌리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학습자들이 요청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주제별 교육자료를 추가로 편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 가족'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부모를 위해 부모교육 학습자료를 특별 편성했으며, 가정의 의미와 부부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과정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가정의 달 특별 편성 콘텐츠 목록】

구분	콘텐츠 목록	비고
시리즈	1. 꽤 괜찮은 부모가 되는 기술(6편)      2. 준비없이 부모가 된 당신에게(6편) 3. 나를 위한 심리학, 가족힐링테라피(8편)	
단편	1. 더 소중해지고 더 평등해진 핏줄      2. 100년 전의 질문: 우리는 평등한가? 3. 아빠에게 나는 거짓말을 했다      4. 가족의 의미 5. 어찌다 부모가 된 당신에게      6. 워라밸의 근간이 되는 가정 7. 가족과의 시간이 있는 삶      8. 갈등에서 행복의 선순환으로	대국민 공개
전자책	1. 노라와 모라/김선재      2. 말순씨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최정원 3. 엄마와 딸의 심리학/클라우디아 하르만      4.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임영주 5. 엄마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박미진      6. 부부, 둘이 가꾸는 정원/정흥기 7.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김기석 외 2명      8. 흔들리는 부부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니스 A. 스프링 외 1명	

또한, 매월 추가 편성되는 자료 중 대국민 공개 가능한 교육자료는 '나라배움터 마을(빌리지)' 대상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나라배움터 마을(빌리지)'은 국가인재원이 지난 2018년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에게 영어, 중국어 등 어학 과정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국가인재원 본원이 위치한 충북 진천과 음성군 지역 주민 300명에게 어학, 과학기술, 인문소양 등 영상 교육자료와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 실시 중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라배움터가 보유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지역사회에 개방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라배움터 마을(빌리지) 전용 누리집 화면

## 제9기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교육 수료

— 밀레니얼 세대들의 새로운 출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 —



[ 제9기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수료식 사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공무원으로 선발된 243명을 대상으로 4월 30일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 했다.

이번 교육은 실시간온라인교육으로 4월 10일부터 4월 30일일까지 3주간 진행하였다.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9급지역인재채용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 되었으며, 각 지역의 고졸 인재들을 균형 있게 공무원으로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의 90%이상이 밀레니얼세대인 만큼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4차산업명(AI와 펜더믹), 디지털리터러시(공공데이터의 이해) 등의 수업을 진행 하였다.

또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탄소 중립문제 등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추구해야 할 자세인 적극행정 등 공무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합교육이 아닌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안내하였으며 입교 전 온라인 접속 사전시연을 통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화면 송출에 문제 없도록 조치하여 한 사람도 결강 없이 243명 모두 수료 할 수 있었다.



[제9기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수료식 교육생 공연 사진]

수료식 당일에 교육생 중 일부는 직접 진천 교육원에 방문하여 축하공연을 하며 끼와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교육생들은 수료소감에서 “대부분 자택에서 강의를 수강하여, 아쉬웠지만 온라인상으로나마 동기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하고 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지역인재 공무원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3주간의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316명 양성

— 10일 온라인 입교식 개최, 오는 9월 3일까지 17주간 —



[ 2021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온라인 입교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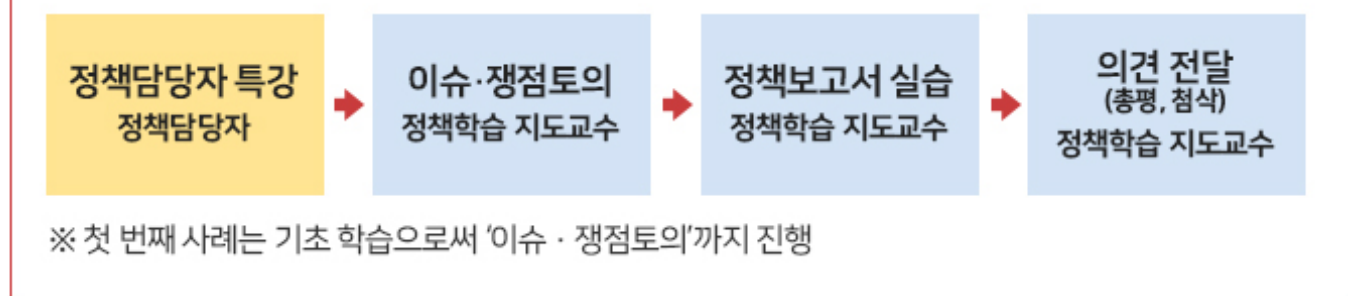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예비사무관 교육이 10일부터 17주간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16명을 대상으로 5월 10일 '2021년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온라인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을 고려하여 교육생들 일부가 국가인재원에 입소하는 부분적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정책 기획 역량을 현업 수준으로 배양하기 위해 현장 사례 교육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공직가치 교육은 '현직자와의 대담', '쟁점 토론' 등 현장 사례를 활용한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개편했다. 교육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공직가치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기획 교육은 교육생들이 5개 정책사례 실제 담당자로부터 정책과정과 함께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배우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직접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과정을 반복해 실시한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 출신 정책지도 교수들이 토론과 보고서 실습을 지도하며 실습한 보고서에 대해 1:1로 세부 의견도 제공한다.

### 정책사례별 학습 체계(총5개 사례)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현업에 배치되면 바로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다룸으로써 각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처 간 소통과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을 위해 자료 분석 등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매체(뉴미디어) 활용 등 소통능력 교육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국립외교원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직렬별 맞춤형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도 마련됐다.

이날 입교식에 직접 참석한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의 모든 정책은 사무관의 고민에서 시작된다"며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인 생각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해 정부 정책을 한층 더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입교사 ]



[ 공무원 현장 낭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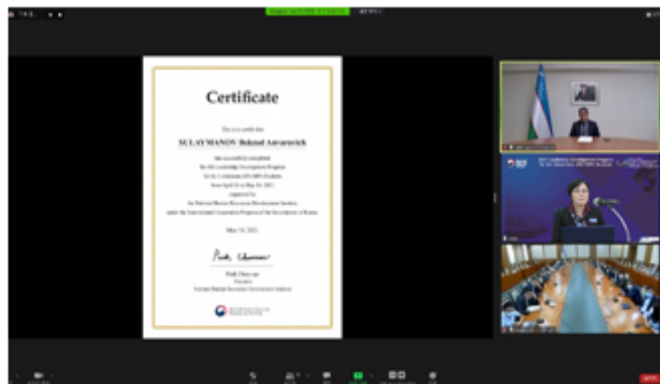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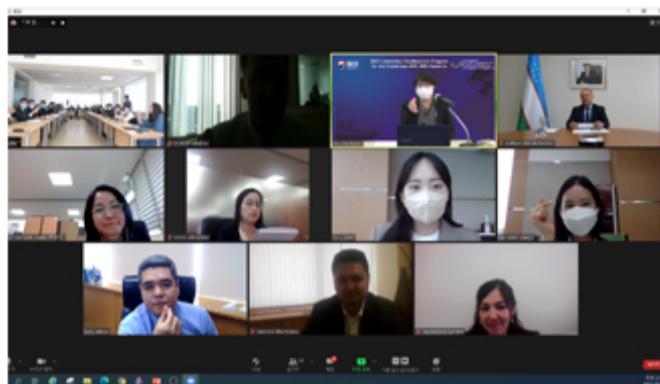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명을 명확히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해 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배치됐을 때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무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세 명의 교육생 대표가 참석하였다. 교육생의 다짐을 발표한 박인혜 교육생은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실제로 아로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좋은 사무관이 되기 위한 지식적 토대를 만들고, 이 토대에 다양한 간접경험을 채워 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생에 정책관리역량 강화교육 실시!

— 대한민국 발전상 및 미래정부 역할 등 전수, 행정개혁에 기여 —

국가인재원은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APA;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 석사과정 교육생 및 교직원 등 35명을 대상으로 『제6차 2021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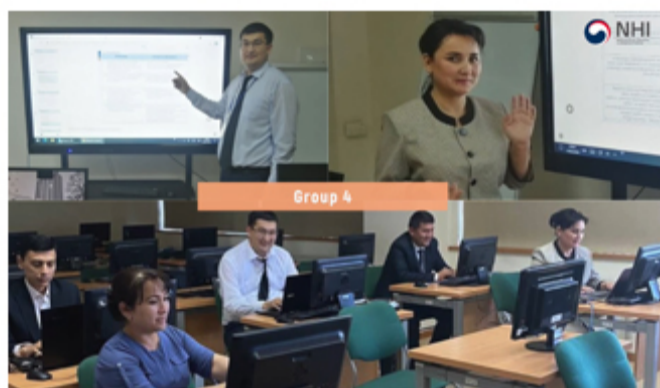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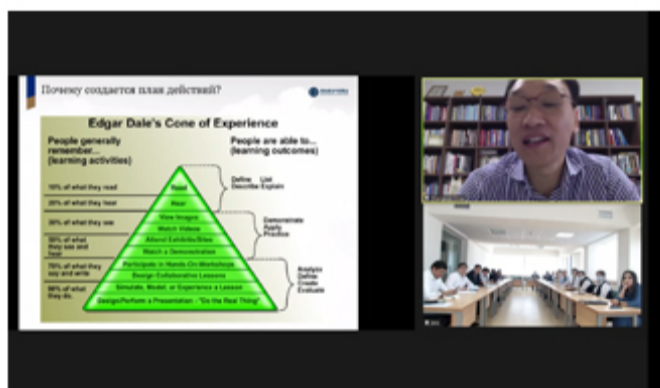
금번 과정은 한국의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와 개발관련 경험과 지식, 기술을 공유·전수하는 개발 경험공유프로젝트(DEEP)\*사업인 『우즈벡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강화 사업\*\*(2017~2021)』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 DEEP :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 사업분야 : 공무원인사 및 교육훈련제도와 정책에 관한 컨설팅,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우즈베키스탄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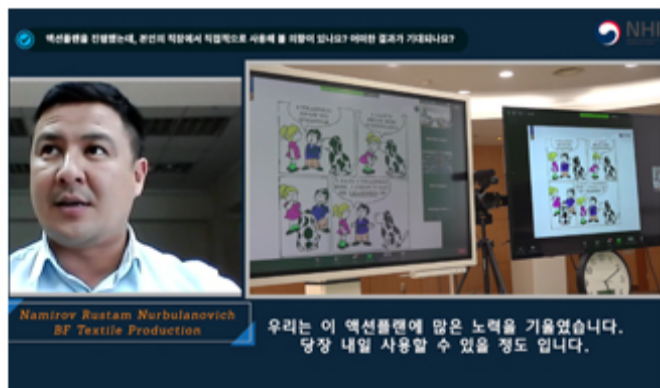
국가인재원은 올해가 개발경험공유사업의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해 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사례, 서울대신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시범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현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즈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생을 대상으로 국가발전 전략 이해 및 변화·혁신에 대한 정책관리 역량 강화, 문제기반 사고력 강화 교육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기반학습 발표 사진]

교육생 누를로예브 샤크트요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수석 컨설턴트는 한국의 성공사례와 한국 정부의 경험을 많이 듣고 배웠으며, 갈등 상황 속에 사람들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갈등관리, 정부혁신과 변화관리 등 다양한 교수들이 진행하는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강의와 워크숍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강의 및 인터뷰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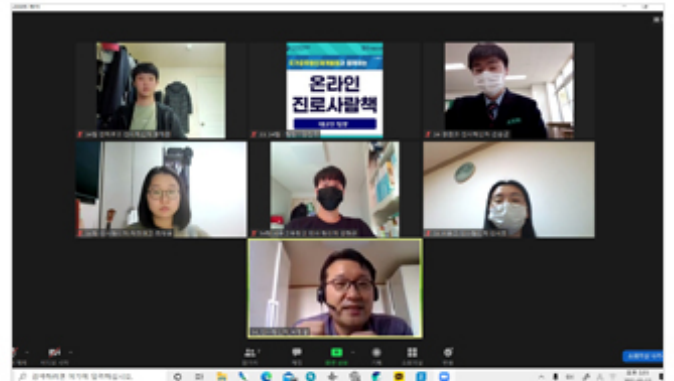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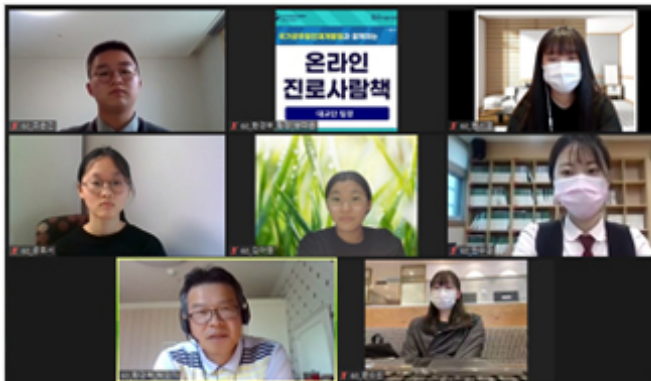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이후 우리와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주요 협력국이다. 이번 과정이 우즈벡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동력이 될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우즈벡 관계를 발전시키는 인재 양성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행정한류 전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협력대상 국가와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인재교육훈련을 지속할 예정이다.

## 고위공직자, 중·고교생 온라인 진로상담 실시

— 고위정책과정 교육생 청소년 간 '비대면 진로 사람책' 진행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 12일 고위정책과정 교육생들이 중·고등학생 간 '온라인 진로사람책'을 진행했다.
  - '진로 사람책'은 전·현직 직업인과 전문가들이 소규모 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청소년의 진로를 탐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된 '진로 사람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로체험이나 대면 상담이 어려움에 따라 올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이번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은 380여명으로 앞서 국가인재원은 (사)한국자원봉사문화와 연계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고, 원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희망부처나 기관을 제시했다.
  - 이에 따라 상담 조는 맞춤형 진로상담을 위해 소규모로 구성했다.
  -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이 현실 속 상황 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조언하고, 진로와 직업을 함께 고민하는 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온라인 진로사람책 실시 사진]

- 진로상담 결과 청소년들은 4.7점(5점 만점), 고위공직자들은 4.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기회로, 고위공직자들은 새천년세대(밀레니얼)와 소통 감수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 상담에 참여한 학생 1군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기관이 실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고 진로 고민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체험이 나의 목표 재정립과 미래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상담을 맡았던 고위공직자 1씨는 "비대면 만남이었지만 학생들이 진로에 적극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온라인 사회공헌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의 꿈을 찾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렵고 힘든 청소년들이나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까지 포괄하는 온라인 진로 사람책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가인재원 고위정책과정은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공직가치, 리더십 등 종합적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1년 과정으로 현재 6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 일 잘하는 새천년 세대(밀레니얼 세대) 신입사무관의 비밀은?

— 세대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역량 학습교재 개발 —

디지털에 친숙하고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찾아 소비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교육 콘텐츠가 나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21년 6월 새천년세대 신입사무관을 위한 온라인 역량 학습교재 '새천년 세대 일 잘하는 공무원 학습계획(프로젝트)\*'을 개발을 완료·배포했다.

\* 교재 명칭 : '짬바 넘치는 MZ 일잘러 공무원 프로젝트'

교육몰입을 위한 게임 형태의 재미 요소를 반영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신입사무관에게 필요한 6개 역량을 제시하는 등 새 천년 세대 특성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 【 '짬바 넘치는 MZ일잘러 공무원 프로젝트' 구성 】

① 도입(인트로)영상(3분)	MZ세대 사무관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
② 자가진단	MZ세대 공무원의 역량 수준에 대해 상황판단검사로 구성
③ 5급 역량교육 콘텐츠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반으로 6개 역량 제시
④ 자기개발학습 교재	역량별(6개) 심화학습 가능한 도서, 영화, 칼럼 등 수록



학습교재는 5급 미래역량 이해를 위한 도입과 △논리적 사고 △업무 민첩성 △소통 △협업 △데이터리터러시 등 6개 역량 자가 진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반 역량 제시 등 8개 영상과 심화학습을 위한 교재 등으로 구성됐다.

영상 도입부는 새천년세대 특성을 비롯해 사무관이 갖춰야 할 역할과 책임 등을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한다.

이어 속도와 흥미가 높은 게임 형태의 가상 상황에서 각각의 역량 수준을 상황별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을 진행한다.

## 【 '짬바 넘치는 MZ일잘러 공무원 프로젝트' 교육 구조 】

사례(Case)	생각해보기	성찰하기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현업 수행과정을 반영한 역량별 교육과 '상사·동료가 말하는 새천년 세대(MZ) 일 잘하는 공무원' 등 성찰 과제를 통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짬바 넘치는 MZ일잘러 공무원 프로젝트' 주요 학습내용 】

번호	차시명	학습내용
1	인트로영상	5급 공무원의 미래역량(6개) 논리적사고, 창의적사고, 업무민첩성, 데이터리터러시, 소통능력, 협업능력 이해
2	역량 자가진단	속도감 있는 게임기반 진단문항으로 현업과 관련된 상황 자신의 역량수준을 흥미있게 확인하고,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
3	논리적사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인증기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2019) 적극행정 사례
4	창의적사고	보안등 관리시스템 개선,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2020) 적극행정 사례
5	업무민첩성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2020) 적극행정 사례
6	소통능력	정책,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상사, 부하,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팀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
7	협업능력	의료기기 수출업체 인증 추진, 인사혁신처(2020) 적극행정 사례
8	데이터리터러시	중앙버스 전용차로 운행제한 속도 하향조정, 서울시(2019)

특히, 자기개발 교재는 역량별 추천 도서, 동영상, 논문,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교육 후에도 상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국가인재원은 교재를 각 부처에 배포하고, 국가인재원 누리집(www.nhi.go.kr)과 온라인 교육 누리집인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에서 제공한다.

앞으로, 5급 신입관리자, 5급 승진자 과정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연계해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제56기 7급신규자과정 교육 수료

—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다양한 부처에서 활약하길 기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7급 신규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231명을 대상으로 6월 11일 실시간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하였다.



[ 제56기 7급신규자과정 수료식 사진 ]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90% 이상이 밀레니얼세대인 만큼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4차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디지털리터러시(공공데이터 실습) 등의 향후 미래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수업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추구해야 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공무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교육과정 역시 오프라인 집합 교육 못지않은 참여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식을 시도하였으며, 공직가치 토론, 정책과정 토론, 실무자 역락실습 등 온라인교육이었지만 교육생들의 열의 있는 참여가 인상적이었다.

코로나19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합교육이 아닌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입교 전 실시간 온라인 접속 사전시연을 통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화면 송출에 문제없도록 조치하여 231명 모두 수료할 수 있었다.

수료식 당일에는 교육생 중 일부가 직접 진천교육원에 방문하여 축하공연을 하며 끼와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교육생들은 수료소감에서 "대부분 자택에서 강의를 수강하여, 아쉬웠지만 온라인상으로나마 동기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5주간의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제56기 7급신규자과정 수료식 사진 ]

##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갖춰야 할 첨단 역량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리터러시 —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 기기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입지를 굳혔다. 그런데 대다수가 디지털 기술을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정착 가치 있게 적용해 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는 많지 않을 터다. 이유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탓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에게 필수 덕목이라는 이 능력은 대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와 개념



지난 1997년 IT 칼럼니스트 폴 길스터(Paul Gilster)가 정의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리터러시 즉, 문해력은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범위까지 통틀어 아우른다. 한마디로, 신속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기술을 습득하고 이해해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실력을 가리키는 셈이다. 단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없듯이 평소 각종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정도만으로 세상이 원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전사회에서 인물 됴됨이를 평가하는 척도가 신언서판(身言書判, 용모·언사·학문·판단력)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단연 이 개념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를 터다. 앞으로는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신선한 콘텐츠를 기획·공유하는 실력을 키울 때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아날로그 세대에 친숙한 매체가 TV, 라디오, 신문 등이었다면, 디지털 시대를 사는 대중에게 가장 편리한 미디어는 인터넷이다. 특히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유튜브는 누구나 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으며, 댓글과 구독 등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다만, 이처럼 범람하는 정보 가운데서 욕식을 구분해서 유용하게 쓰는 게 곧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해당 특성을 4차 산업혁명의 기초에 적합하게 활용한 대표적 예로는, 싱가포르의 스킬즈 퓨처 운동(Skills Future Movement)이 있다. ICT 분야를 포함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인당 약 42만 원가량의 크레딧(Credit)을 지급해 학습을 활성화했다는 게 주목자다. 2016년 기준으로 200만 명에게 신기술의 재교육을 펼쳤으며, 무엇보다 3시간에 불과한 컴퓨터 기초 수업 등으로 첨단과는 거리를 둔 노령 인구를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계로 이끌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편,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EU')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별·소득별 디지털 이해력 격차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유럽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연합국 내 전체 청소년 가운데 32%가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장비, 활용 능력 등의 부족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집행위원회(EC)는 2020년 9월 30일, 2021~2027년도 디지털교육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과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국제컴퓨터·정보소양 연구(CILS; 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참여를 확대해 어린 연령대의 기초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또, 2030년까지 컴퓨터정보활용능력이 저조한 13~14세 EU학생들의 디지털 문맹률을 15% 이하로 도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서울시에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노년층의 스마트 기기활용 역량을 높이는 노노(老老)케어에 나섰다. 2019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어디나(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이 1대 1 맞춤형 교육으로 총 8,000명 대상의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배움터는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총 140여 곳에 이르는데 커리큘럼은 각각 다르지만,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지도서비스 활용, 전자상거래 이용, 유튜브 콘텐츠 제작, 코딩, 3D 프린터와 같은 첨단 장비 활용 등을 수준별 지도할 계획이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맥락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시 관련 교육에 힘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공무원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활용 역량 배양이 필수적인 까닭이다. 따라서 교육체계 정립과 특화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전문 과정 운영에 뛰어 들었다.

특히 이곳에서 진행 중인 직무·전문성 교육 중엔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4차 산업혁명 트렌드의 이해>는 연 4회 교육하며, 미래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초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다. 또, ▲미래사회 변화와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이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정책 추진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인공지능 도입 시 고려사항과 AI 윤리 필요성 ▲디지털 뉴딜 기술 이해 등을 학습한다.

한편, 중앙부처 4~5급 공무원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는 연 5회 시행하며,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소통하는 역량을 개발하며, 공공 분야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디지털 윤리의 필요성을 배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과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이 과정은 업무 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종합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종합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한다.

그 밖에 DNA(Digital·Network·AI) 아카데미에서 범정부 디지털 혁신과 지능형 정부 구현에 효과적인 정보화 실무를 위해 13개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관심 갖기 ▲시작하기 ▲노력하기 등 세 단계로 분류한 교과는 다음과 같다.

DNA 아카데미	노력하기	R 빅데이터 분석
		파이썬 빅데이터 처리
		텐서플로우 AI 구현
		엑셀 VBA 빅데이터 처리
	▲	
	시작하기	파이썬 실무 활용 기초
		앱으로 배우는 스마트 센서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엑셀 VBA 기초 코딩
	▲	
	관심갖기	스마트 라이프 따라하기
		빅데이터 이해하기
인공지능 이해하기		
3D 프린팅과 친해지기		
클라우드 컴퓨팅과 친해지기		

자세한 교육과정 소개·일정은 국가인재원 홈페이지(교육소개>교육과정>직무/전문성교육, 또는 교육운영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현주소



국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다양한 영역에 스며드는 이때,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소외당하는 대상이 있으니, 50~60대의 장년층과 노년층이다. 먼저 소개한 바와 같이, 정부에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나 기본적인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다. 자연히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 의견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기조차 어렵다. 더불어 패스트푸드점의 무인주문 결제 키오스크나 모바일 뱅킹 등 간단한 생활 전반에서 고충을 느낀다.

놀랍게도, 10~20대 대다수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부족군에 속한다. 초등학교 교과과 코딩을 배울 만큼 기술 수준은 뛰어난나 일명 악플로 불리는 비방성 댓글에 익숙하고, 익명 뒤에 숨어 선정성, 폭력성 등 드러내다 보니 디지털 윤리에 취약한 이유에서다. 또, 검증받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발판이 필요하다. 아울러 콘텐츠 개발에 뛰어든고자 하는 전 연령대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 정부 차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도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대는 뉴 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대면이 당연했던 시기는 지나고, 비대면으로 작업과 미팅,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온라인과 신기술을 제외하곤 유무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은 현재 기업에서 중시하는 이 역량을 청년세대에 훈련해 취업으로 이어지게끔 뒷받침한다.

또한, 교육부에선 올해 5월, 디지털 사회에 대비하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다문화가정, 새터민, 불우이웃 등 환경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쉽지 않은 대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 참고 자료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8982&cid=59086&categoryId=59091>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32LD09S>
- <https://www.etnews.com/20190628000119>
- <https://www.mk.com.kr/news/economy/view/2019/05/298884>
- <https://www.news1.kr/articles/74296910>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28985944&mediaCodeNo=257&OutLnkChk=Y>
- [https://www.nhi.go.kr/education/eduList/eduInformation\\_5.htm](https://www.nhi.go.kr/education/eduList/eduInformation_5.htm)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41>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2\\_0001392770&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2_0001392770&cid=10201&pid=10200)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8873>

##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를 읽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Work-Life-Balance)을 넘어 일과 삶의 조화를 의미하는 워라블(Work-Life Blending)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일이 즐거워야 생활도 즐겁다는 의미로서, 일을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서 한층 발전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이 모두 퇴근 후의 삶에 국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퇴근 후 워라벨을 한다고 삶이 만족스럽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임병근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저자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간추려 소개한다. 이는 워라벨을 넘어 ‘워라블’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시대적 가치 하에서 일과 삶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 단순하게, 기획하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일할 것을 강조한다. 쉬운 말이지만 막상 행하기 어려운 일을 참으로 쉽게 풀어가며 설명한다. 우선, 기획을 할 때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무엇을(WHAT) 왜(WHY) 하는지를 밝히라고 한다. 즉,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대가 궁금해 하는 내용과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가능한 짧게 말하라는 것이다. 특히 조직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는 애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우니,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조언은 나에게 참 소중한게 다가왔다. 또한 인간의 뇌는 단순하니 한 번에 뇌리에 꽂히도록 기획하고, 보고서 핵심을 30초안에 깔끔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충고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 □ 단순하게, 글을 쓰다

저자는 또한 ‘3대 비즈니스 글쓰기 방법’을 소개하였다. 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보고하는 ‘현황보고서’와 미래의 행동을 바꿀 것을 목표로 설득하는 ‘기획서’, 감동과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설문 및 강연’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작성하라고 한다. 이러한 글쓰기 방법은 앞으로 나의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작성자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되는 보고서는 그 자체가 실패작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내게 다소 충격적이었다. 공직자는 문서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자의 말은 무심코 어렵게만 쓰려고 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내가 쓴 문서의 최종고객이 누구인지를 의식하며 작성하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글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 단순하게, 말하다

저자는 업무를 지시할 때 가능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귀뜸한다. 지시하는 사람이 업무를 설명하는데 5분 더 시간을 할애한다면 이를 실행하는 사람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앞으로 직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여 직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한다.

### □ 단순하게, 관계 맺다

저자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요구해도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넘어서는 안 될 암묵적인 ‘선’이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자신들이 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소위 ‘주사(술을 마신 후 버릇으로 하는 못된 언행)’라는 것이 술에 완전히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면 자신이 하는 행위를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일종의 기억력 상실로 인한 실수로 여겼는데, 이 글을 읽고 이러한 생각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선’은 상사와 하급자 사이에도 존재한다. 상사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할 때, 하급자가 자신이 하는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이 ‘선’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층 더 강화된 ‘선’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상급자-하급자뿐만 아니라 선·후배,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이 ‘선’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선’을 알려주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그 ‘선’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는 ‘선’은 더욱 강도를 높여 결국 내가 참기 어려운 ‘선’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다. 평소 나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상사나 동료, 직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분명하게 이야기 하려고 한다. 부담스러운 일은 ‘No’라고 이야기하고,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인지를 말해주고, 마음속에만 담지 않고 말로 표현하여 그들에게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직원들이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 그들도 자신들의 ‘선’을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 □ 단순하게, 실천하다

공직자라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의 공직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로 국가관, 윤리관을 들 수 있다. 즉, 공직관으로 무장하고, 윤리정신을 갖춘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가발전을 위해 공직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 하루에도 수없이 작성하는 프로젝트 기획, 보고서 작성, 보고와 수없이 대하는 동료와의 관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일 잘하는 공직자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비단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배워 직장 내 수많은 일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수시로 탐독하며 업무와 관계에 활용하고, 아울러 직원들을 멘토링하는 데에도 활용하여 일 잘하는 공직자들을 함양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 Quiz

국가인재원은 이 나라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치기반 공직리더십 및  
효율적 대국민 소통 등을 공동 연구하였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Live>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 응답기간

2021.6.1.(화)~2021.6.30.(수)

응답하기

### < NHI Live 3월 퀴즈 당첨자 명단 >

이\*재, 김\*기, 이\*은, 손\*완, 김\*지, 박\*은, 이\*재 님  
축하드립니다.

